coupang newsroom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4월 2주 차

2025. 4. 3.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4월 2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SNL 코리아 시즌 7

4월 5일(토) 저녁 8시 최초 공개

신동엽 / 안영미 / 이수지 / 김민교 / 정성호 / 권혁수 / 김원훈 / 지예은 / 한국 / 2025

떴다 하면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믿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쿠팡플레이 가 다시 한번 토요일 밤을 유쾌하게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시즌 7의 포문을 여는 호스트는 배우 하정우.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유머 감각을 보여준 그가, 를 통해 어떠한 매력을 선보일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2화 호스트로 배우 서예지가 출연을 예고했다.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색다른 변신과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새로운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 과감하고 확신의 웃음을 선사하는 . 오는 4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 1화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SNL 코리아 시즌 7'

장손

드라마 / 가족 / 손숙 / 강승호 / 우상전 / 한국 / 2024

제사 한 번 지내러 모였을 뿐인데, 대가족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업으로 내려온 두부공장을 두고 벌어지는 유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가족들의 갈등과 충돌을 담은 독립영화 <장손>은 '핏줄'과 '밥줄' 사이에서 저마다의 선택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장손 '성진(강승호)'이 있다. 가족이 지켜온 두부공장을 이어받으라는 말에,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저는 안 합니다." 한마디 선언으로 시작된 갈등은, 예기치 못한 이별이라는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둘 드러나는 70년 묵은 대가족의 비밀.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애틋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수작 <장손>은 단단한 서사와 섬세한 연기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익숙한 듯 낯선 감정들을 유쾌하고 진심 어린 시선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지금의 한국 독립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웃음과 울음을 담고 있다.

'장손'

추락의 해부

미스터리 / 산드라 휠러 / 스완 아를로드 / 밀로 마차도 그라너 / 프랑스 / 2023

"한 번의 추락 그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알프스 외곽, 조용한 산장. 남편이 눈 덮인 지붕 아래로 떨어진 순간, 작가 '산드라(산드라 휠러)'의 일상은 무너진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애도할 틈도 없이, 그녀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 '다니엘(밀로 마차도 그라너)', 그리고 그의 안내견. 사건은 사고였을까,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타살이었을까. 프랑스 법정 드라마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추락의 해부>는 한 가족의 파국을 둘러싼 진술과 반박, 기억과 망각, 사랑과 증오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법정 공방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진실을 쫓는 과정은 점점 더 개인의 내면과 관계의 심연을 향해 파고들며, 감정을 절제한 연출,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 단 한 장면도 헛되이 흐르지 않는 구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결론도 쉽게 내릴 수 없게 만든다. 202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자,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극

찬을 받은 <추락의 해부>. 수많은 범죄 심리극 가운데서도 유독 오래도록 마음을 흔든다.

'추락의 해부'

도그맨

스릴러 / 케일럽 랜드리 존스 / 조조 T. 깁스 / 프랑스 / 미국 / 2024

뉴저지 도심 한복판, 한 남자가 긴급 체포된다. 그의 곁에는 온몸으로 그를 감싸듯 몰려든 개들뿐. 아무런 진술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된 남자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입을 연다. 그리고 15년간, 그가 개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그 안에 숨겨진 폭력과 외로움, 그리고 구원의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도그맨>은 단순한 사건의 재구성이나 기이한 인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개에게 버림받고, 다시 개를 통해 삶을 회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영화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 얼마나 망가지고, 또 어떻게 사랑과 연민으로 다시 살아나는지를 처절하게 그려낸다. 여기에 시선을 압도하는 연출과 주인공 '더글라스'를 연기한 케일럽 랜드리 존스의 파격적이고도 눈부신 열연은 이 이야기에 잊을 수 없는 강도를 부여한다. 프랑스 최고 거장 '뤽 베송' 감독이 다시 한 번 인간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피어난 빛을 담아낸 작품인 <도그맨>은 한 남자의 인생을 넘어,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해 묻는다.

'도그맨'

더 폴: 디렉터스 컷

4월 4일(금) 공개 예정

드라마 / 리 페이스 / 카틴카 언타루 / 저스틴 와델 / 줄리안 블리치 / 영국 / 2024

무성영화 시대의 할리우드. 스턴트 사고로 병원에 실려 온 '로이(리 페이스)'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사랑도 잃었지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호기심 많은 소녀 '알렉산드리아(카틴카 언타루)'는 그런 '로이' 곁에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로이'는 그녀에게 매일 다섯 명의 무법자가 펼치는 놀라운 모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로이'의 아픔이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력과 만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눈부시고, 기묘하고, 때로는 슬프게 흘러간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소녀는 점점 더 깊숙이 신비의 세계로 빨려들어 간다. 전 세계를 돌며 실제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눈을 의심케 하는 비주얼과 '타셈 싱' 감독 특유의 강렬한 미장센은 이 작품을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완성시킨다.

더 퍼시픽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전쟁 / 제임스 배지 데일 / 라미 말렉 / 조셉 마젤로 / 존 세다 / 애쉬튼 홈즈 / 미국 / 2010

"전쟁은 끝났지만, 그 안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 HBO 시리즈 <더 퍼시픽>은 제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태평양 전선이라는 지옥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경은 유럽이 아닌 태평양.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섬에서, 미 해병대원들은 끝없는 밀림과 바다, 그리고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일본군과 마주한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진다. <더 퍼시픽>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정신을 잇는 작품이지만, 전쟁을 승리나 영웅담으로 그리기보다, 그 안에 놓인 병사들의 내면을 응시한다. 총성과 포화 너머, 공포와 분노, 회의와 상실, 그리고 간신히 붙잡은 인간성. 이 시리즈는 전장의 광기 속에서도 끝끝내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압도적인 제작 규모와 실감 나는 전투 장면, 그리고 캐릭터들의 내면을 정교하게 따라가는 연출은 이 드라마를 단순한 전쟁물이 아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초상'으로 만들어낸다.

'더 퍼시픽'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2025 WarnerMedia Direct, LLC. All Rights Reserved. HBO Max™ is used under license.
액션 / 갤 가돗 / 밴 애플렉 / 헨리 카빌 / 제이슨 모모아 / 에즈라 밀러 / 레이 피셔 / 자레드 레토 / 미국 / 2021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슈퍼맨이 사라진 세계. 그의 죽음 이후 지구는 깊은 침묵과 불안 속에 빠져들고 우주 저편에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위협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배트맨, ‘브루스 웨인(밴 애플랙)’은 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수호자들을 찾기 시작한다.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갤 가돗)’와 손을 잡고, 아틀란티스의 왕 ‘아쿠아맨(제이슨 모모아)’ 초인적인 기술을 지닌 ‘사이보그(레이 피셔)’ 그리고 시간을 가는 속도의 사나이 ‘플래시(에즈라 밀러)’를 차례로 모은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DC 유니버스를 향한 감독의 뚜렷한 비전이 완전히 구현된 4시간짜리 서사시다. 기존 극장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의 내면, 드러나지 않았던 복선, 더 정교하고 장엄해진 스토리라인이 새롭게 펼쳐진다. 시대의 영웅들이 처음으로 진짜 연대를 이뤄가는 이 서사는 단순한 액션 블록버스터를 넘어, 상실과 구원, 책임과 희생의 의미를 묻는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트루 디텍티브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범죄 / 매튜 맥커너히 / 우디 해럴슨 / 마허샬라 알리 / 레이첼 맥아담스 / 미국 / 2014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헤쳐야 하는 것이다”. 1995년, 루이지애나. 허허벌판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형태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 ‘러스트 콜(매튜 맥커너히)’과 ‘마틴 하트(우디 해럴슨)’. 성격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은 함께 단서를 좇으며 어둠의 끝으로 걸어 들어간다. <트루 디텍티브>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하나의 사건은 두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교차되는 내레이션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폐허 같은 풍경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망과 광기를 서늘하게 비춘다. HBO가 선보인 가장 강렬하고 깊은 범죄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는 매튜 맥커너히와 우디 해럴슨의 압도적인 연기, 문학적 대사와 심리적 밀도, 그리고 한 편의 소설

처럼 정교한 서사는 첫 시즌만으로도 TV 드라마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트루 디텍티브'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